

## 같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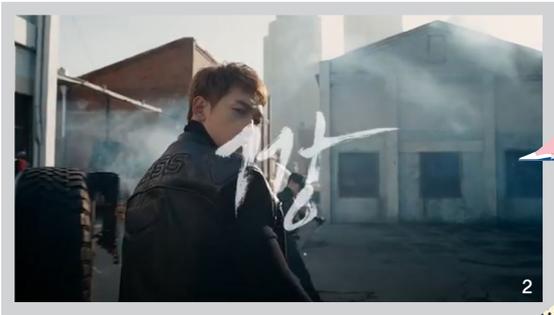
: 소통N공감

'관짝 댄스', '식후강', '딸라'. 흔히 인싸라면 한번쯤 들어보았을 말이다. 특정한 콘텐츠를 재가공하고 즐기는 '밈' 문화가 MZ세대(20·30대)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화력을 키우며 진화하고 있는 밈 문화를 전격 소개한다.

글 편집실

# 재밌으면 OK!

##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밈(Meme) 문화를 아시나요?



이미지 출처

1\_ 버거킹 유튜브 영상 캡처

2\_ 비의 '강' 공식 뮤직비디오 유튜브 영상 캡처

3\_ MBC Kpop 유튜브 영상 캡처



## 네티즌에 의해 강제 소환된 스타들

상반기 연예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스타를 꼽으라면 단연 '1일 1강'의 주인공인 비다. 2017년 발매한 미니 앨범 <마이 라이프 애(MY LIFE 愛)>의 타이틀곡 '깡'이 인기 역주행하면서 비는 대중들에 의해 '강제 소환'됐다. 사실 깡은 발매 당시엔 인기나 화제성이 거의 없었다. 이후 한 여고생이 유튜브에 깡 커버댄스를 올리면서 우스꽝스럽지만 비를 연상케 하는 디테일한 모습에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됐다. '깡'의 뮤직비디오에는 조롱성 댓글이 연일 달렸고, 비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순식간에 '댓글 맛집'으로 거듭났다.

조롱에서 각종 패러디를 거쳐 밈 문화가 된 깡은 1일 1강, 식후깡, 깡지순례, 새벽깡 등 신조어를 낳으며 놀이문화가 됐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 출연한 비는 "나는 1일 7강 한다. 더 놀아주시길 바란다"는 쿨한 반응을 보이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방송 후 깡 열풍에 대처하는 비의 유쾌한 모습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깡'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비는 유재석, 이효리와 함께 <놀면 뭐하니?> 혼성 그룹 프로젝트에까지 합류했고, '깡' 이름이 들어가는 스낵 CF 모델까지 발탁되며 인기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 외에도 다수의 광고, 프로그램에서 그를 향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연예계 트렌드가 된 1일 1강 신드롬은 이제 젊은 MZ세대를 넘어 40대 나아가서 50대의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익숙한 문화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깡 열풍에 '탐승한 농심 측은 한 매체에서 "비의 광고 발탁 소식만으로 매출이 30% 증가했으며 1020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동시에 긍정적이면서도 확산성 있는 마케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술한 패러디로 인기를 끌었던 김영철의 '누가 기침소리

를 내었는가?'와 '사팔라', 영화 <타짜>의 명대사인 '묻고 더블로 가', 제국의아이들의 '마젤토브' 등 역시 역주행하면서 인기를 끈 사례다. 그런가하면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른바 '관작 댄스'가 밈 열풍의 주역이 됐다. 관작 댄스는 아프리카 가나의 독특한 장례 문화가 밈으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며 나온 말이다. 국내에서도 '관작 소년단'으로 불리며 챌린지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 더 강력한 밈을 찾아나서는 대중들

밈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 주요 콘텐츠 소비자인 MZ세대는 온라인 놀이 문화에 익숙하다. 단순히 콘텐츠를 복제·생산·소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마니아적인 B급 감성을 더해 특별한 문화 코드를 생성해내고 있다. 여기에는 '재미'가 들어있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마케팅 차원에서 만드는 억지스러운 콘텐츠는 이들의 관심 밖에 놓인다.

밈은 사실 마니아적인 특성 탓에 모든 대중이 공유하기 힘들다는 측면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밈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질수록 TV 프로그램 등 주류 미디어는 관심을 가지지만, 기존 수요층인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시들시들해진다.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던 재미있는 놀이'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거창한 의미가 부여되면서 더는 매력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밈은 특별한 놀이 문화가 아닌 한철 지나가는 유행에 지나지 않는다. 밈도 나름의 유효기간이 있는 셈이다. 대중은 늘 더 신선하고 강력한 밈을 찾는다. 매의 눈을 지닌 대중 사이에서 제2의 '깡'은 언젠가 발굴될 것이다. 대중은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밈 문화로 또 하나의 웃음거리를 찾게 될 것이다. ☺

